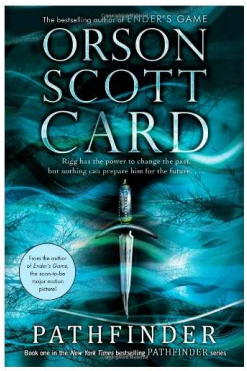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PATHFINDER
가제 : 패스파인더
저자 : Orson Scott Card
출판사: Simon Pulse
발행일: 2011년 10월 4일
분량 : 6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엔더스 게임'의 작가가 완성한 또 한 편의 특별한 SF, 과거를 볼 수 있는 소년 앞에 펼쳐진 세상

2013년 영화로도 제작된 SF 소설 '엔더스 게임'의 작가, 올슨 스콧 카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의 활약을 다룬 또 다른 이야기를 완성했다.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다양한 존재들 이 낯선 행성에서 펼치는 모험을 그린 소설로, 65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빠르고 흥미진진한 모험이 책장을 금세 넘어가게 만든다. 이야기의 한 축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열세 살 소년, 리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으로 이루어진다. 시골 오지에서 숲에 덫을 놓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리그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아버지에게서 아주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영락없는 사냥꾼으로 생각하지만, 리그는 그 엄한 교육 덕분에 언어, 과학, 역사, 정치 등 폭넓은 지식을 두루 갖춘데다 이상한 능력을 타고났다. 바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과거 발자취를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몇 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까지, 그 모든 과정이 리그의 눈 앞에 떠오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유일하게 과거를 볼 수 없는 대상이다. 리그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 리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법도 터득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죽기 직전 수수께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도시로 가서 누이를 찾으라는 것이었다. 리그는 어쩌면 그 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몰아 붙이며 이어온 그 힘든 교육과 훈련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유언 대로 있는지조차 몰랐던 누이를 찾아 나선다. 그의 곁을 따르는 친구 움보 역시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두 사람은 여행길에 다양한 친구와 적을 만나고, 도움도 얻지만 위험천만한 상황도 수도 없이 넘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인물들, 우주에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는 지구인 앞에 펼치는 특별한 여정

그 험난한 여정에서, 리그는 자신에게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여행이 이어질수록 지금껏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비밀도 점점 드러나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리그의 능력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면서 리그 같은 특별한 존재를 왕위에 앉히려는 자들과 그를 없애려는 자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제 리그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쪽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거머쥐고 뒤흔들지 않게 하려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야기의 다른 한 축은 우주선을 이끄는 젊은 선장, 람 오딘이 이끈다. 지구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에게는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 그가 이런 여행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 우주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 막중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 발휘하며 여러 행성을 찾아 다닌다. 리그와 람 오딘,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엮이는 순간 이야기는 신비한 능력에 영리한 책략과 정치적인 거래가 더해지면서 예측하기 힘든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서로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과학은 부차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면서도 과학이 모든 권력을 좌우하는 세상, 저자가 만든 이 모순된 세계에서 모험, 정치, 시간여행이라는 소재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저자 소개>

올슨 스콧 카드(Orson Scott Card)는 현대 SF 소설을 이끌어가는 거장 중 한 사람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베스트셀러 ≪엔더스 게임≫의 작가이다. 2008년 마거릿 A. 에드워드 상(Margaret A. Edwards Award)과 미국 도서관협회가 수여하는 상을 수상하는 등 61편의 책을 펴내고 연극, 만화, 에세이, 칼럼도 여러 편 발표하면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제목 : WARREN THE 13TH AND THE ALL-SEEING EYE

가제 : 워렌 13세와 마법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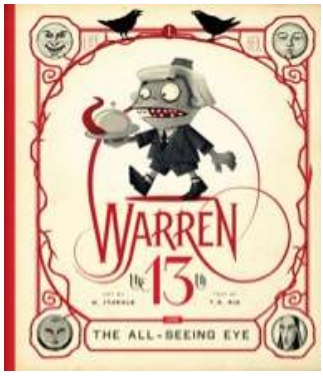
저자 : Tania del Rio, Will Staehle,

출판사: Quirk Books

발행일: 2015년 11월 2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워렌 호텔의 13대 상속자인 열두살 워렌, 몰락한 호텔을 되살리기 위해 마법의 눈을 찾아나서다

흉흉한 분위기가 가득 감도는 우중충한 시골 마을, 축 늘어선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숲 바로 옆에 '워렌 호텔'이 우뚝 서 있다. 가까운 곳에 다른 건물은 하나도 없고 시내까지 가려면 걸어서 몇 시간은 가야 하는 그 호텔에 열두 살 된 워렌이 살고 있다. 워렌 가문의 열 세 번째 자손인 어린 워렌은 조상 대대로 물려진 이 호텔에서 유일한 심부름꾼이자 온갖 허드레 일을 다 도맡아 하는 시종으로 밤낮없이 고달프게 일하며 살고 있다. 태어나서부터 호텔을 떠나본 적이 없는 워렌은 굴뚝 청소를 하느라 호텔 지붕에 오를 때마다 멀리 지평선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책에서만 읽은 다양한 도시와 항구, 사막, 정글은 어떤 모습일까?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지금 워렌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부름과 청소, 일감만 가득하다.

호텔에는 5년째 손님이 단 한 명도 찾아온 적이 없다. 워렌이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호텔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호텔은 객실을 쓰려면 최소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매일 밤 커다란 자동차들이 호텔 정문에 줄지어 들어서곤 했다. 찾아오는 손님들도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 모른다. 남자들은 턱시도에 말쑥한 모자를 눌러 쓰고 여자들은 드레스에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차에서 내렸다. 보이로 일하던 직원만 열 명이 넘었다. 다들 빳빳하게 다린 유니폼을 입고 반짝이는 짐 수레에 손님의 가방을 실어 날랐다. 어디 그 뿐인가, 호텔 안팎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꾼들도 많아서 카펫이든 가구든 먼지 쌓일 날이 없었고 벽지도 항상 깨끗했다. 객실마다 수십 명의 하녀가 드나들며 새하얀 린넨 천으로 침대를 정리하고 곳곳에 화사한 꽃들을 장식했다. 하지만 워렌이 일곱 살이던 5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워렌이 호텔을 이어 받기에는 너무 어린 탓에 루퍼트 삼촌이 대신 맡았는데, 워낙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제대로 호텔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호텔은 급속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장사가 안 되니 그 많던 직원들은 하나 둘 정리되고, 잔디는 돌보지 않아 잡초로 뒤덮이고, 몇 달씩 머무르던 손님들도 잠깐 머무르다 가더니 급기야 발길도 들이지 않게 되었다. 루퍼트 삼촌이 경영을 맡고 딱 1년 만에 객실 대부분이 텅텅 비어버리고 지금까지 손님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무시무시한 아나콘다 이모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호텔을 쥐고 흔드는 사악한 이모, 괴짜 손님들, 유령 사이에서 밝고 명랑한 소년이 펼치는 모험

투명하게 빛나던 창문은 더러운 먼지에 뒤덮이거나 온통 금이 가고 건물 전체가 곳곳에 벗겨지고 떨어져 나간 페인트 때문에 얼룩덜룩 지저분하고 빛 바랜 벽지도 여기저기 벗겨지는 이곳에는 어린 워렌과 루퍼트 삼촌, 그리고 무시무시한 아나콘다 이모 세 사람만 머물고 있다. 사악하기 그지 없는 아나콘다 이모의 포악한 성격은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는 호텔에 더 짙은 우울함만 드리웠다. 그녀가 이 낡은 호텔에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 호텔 어딘가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일명 마법의 눈이 숨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모는 어떻게든 그 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호텔을 지금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어리지만 호텔이 소중한 가문의 유산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워렌은 이 호텔을 꼭 지키고 싶다. 고단하고 불운한 나날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늘 호기심이 가득한 워렌은 어느 날 호텔을 다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아나콘다 이모의 속셈을 알게 된다. 그리고 호텔을 지키기 위해 이모보다 먼저 그 보물을 찾기로 결심한다.

빅토리아 시대 고딕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하고도 참신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눈길을 사로잡아 다소 으스스한 이야기 속 분위기와 달리 아기자기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5년 만에 갑자기 호텔에 찾아오는 괴짜 손님들, 저주, 마녀, 암호, 괴물들은 어린 워렌과 독자들을 점점 더 신비한 세상 속으로 데려간다.

<저자 소개>

타니아 델 리오(Tania Del Rio)는 전문 만화 작가이자 예술가로 10년 넘게 아치 코믹스(Archie Comics), 다크 호스(Dark Horse), 마블(Marvel) 등과 함께 일하며 창작과 일러스트레이트 작업을 했다.

윌 쉬텔레(Will Staehle)는 일러스트 작가로 하퍼 콜린스 출판사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며 <프린트 매거진(Print Mazazine)>에서 30세 이하 신예 비주얼 아티스트 중 최고의 예술가로 선정되었다. 현재 시애틀에 살면서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